

冊의 屬性에 관한 名言 研究

李 萬 洙*

〈목 차〉

I. 서 론

II. 책의 속성과 명언

III.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 조사

IV.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 분석

V. 결 론

Abstract

I. 서 론

1. 研究의 目的

책은 사회속에서 생성·발전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책은 한 국가의 문화의 척도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책을 읽으면 개인의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며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기도 한다. 책은 학술활동의 바탕이며 문화 창조와 인재 양성의 큰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책의 가치를 숭상하였고 책속의 진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왔던 것이다.(이두영, 1993, 2) 우리나라의 출판사업은 책의 해 제정과 출판계의 노력으로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여 출판사의 수도 많고 인쇄 기술의 발달로 발간되는 책의 종류도 다양하며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형서점의 등장으로 국민독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專任講師

다. 그러나 1996년도 말 현재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출판사는 12,544개 인데 한 해동안 한 권의 책도 내지 않은 무실적 출판사가 10,199개로 81.3%(세계일보, 1997, 18)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한다. 우리의 생활이 책과 더불어 살고 책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책의 속성에 대한 재 조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도 인쇄매체인 책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책의 속성을 알아보고 우리 생활에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책의 속성에 대한 명언의 분석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문헌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서양 선각자들의 책의 속성에 관한 견해를 알아보고 책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研究의 方法 및 範圍

연구의 방법은 책의 속성에 관한 서양의 명언을 문헌 조사하여 그 내용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말한 사람의 국적·직종·업적 및 활동·활동시기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책의 속성에 관한 서양 격언과 서양의 선각자들이 말한 명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 用語의 定義

(1) 冊

동양 고대의 최초의 정보자료의 명칭인 冊(정필모, 1996, 29)과 서양의 정보자료의 통칭 중의 하나인 Book의 의미를 지닌 것을 말한다. 또한 필사되었거나 인쇄된 하나의 논저나 일련의 논저로서 여러 장으로 된 종이나 기타의 물체가 하나의 전체적인 자료를 구성하도록 함께 매어진 것(정필모,

1996, 25)을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2) 名 言

명언은 사리에 들어 맞는 훌륭한 말 또는 유명한 말을 가리키는데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인 격언을 포함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말한 짧은 말을 일컫는 개념이다.

Ⅱ. 册의 屬性과 名言

1. 册의 意義

(1) 册의 屬性

책이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그림이나 글자로 종이에 쓰거나 인쇄하여 깨맨 것으로 옛날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쓰여 왔다. 册이란 글자 외에도 典, 書, 本의 글자가 책을 뜻하고 합성어로는 圖書, 書籍, 典籍, 簡册, 文籍, 書卷, 書史, 書帙, 册子, 書册, 書誌, 文獻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册이란 외자를 사용하여 서책의 범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천체봉, 1993, 75-76) 1968년 국제출판협회의 「도서헌장」에는 ‘도서는 단순히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상품만은 아니다. 도서는 인간정신의 표현이며, 사고의 매체이며 모든 진보와 문화발전의 바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안도섭, 1994, 25) 책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 중의 하나이다. 동서 고금의 역사와 문화, 철학이 숨쉬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진실된 모습이 담겨져 있다. 바로고 곳곳하게 살아온 과거의 역사와 조상의 슬기가 우리를 감동시킨다. 과거 뿐만아니라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주기도 한다.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책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이란 표어는 책속에서 밝혀주는 삶의 바른 길을 배우고 익히자라는 명언이다. 좋은 책은 생활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책은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벗이면서 스승이다.

(2) 冊의 由來

책은 중국에서 주나라 때에 대쪽에 글을 써서 가죽으로 엮어 말아서 간직하여 두었던 기록이 전하여 지고 있는 것을 보면 BC 1000년 경부터 서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서양에서는 이집트의 파피루스(Papyrus)에 글자를 쓰게 된 것이 서적의 시초이다.(학원출판공사. 학원세계대백과사전 11, 1987, 113) 책의 역사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물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점토판,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이용한 파피루스 문서, 소아시아 지방의 양피지·독피지 종이, 중국의 초기 서적, 인도양 주위의 국가에서 이용한 多羅樹 잎 서적을 들 수 있다. 점토판(clay tablet) 서적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양질의 점토로 판을 만들고 갈대펜이나 나뭇조각으로 설형문자를 새긴 다음 구워 만든 것이다. 서양에 있어서는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글자를 쓰게 된 것이 서적의 시초인데 파피루스 문서는 나일강 연안의 수초인 파피루스를 가공하여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고 그 위에 갈대펜으로 문자를 써서 수십장씩 풀로 붙여 두루마리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양피지(Pearchment)와 독피지(Vellum)는 파피루스 대신에 사용하기 위하여 새끼양과 송아지의 가죽을 가공하여 만든 기록자료로 중세기 수도사들도 사용했으며 최근에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가죽종이 문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짐승의 뼈, 거북의 등딱지에 기록을 하다가 대나무와 비단이 이용되었으며 이설은 있지만 후한의 채륜이 발명한 제지법으로 만든 종이에 의하여 서적의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종이 가 처음 제작된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제지법이 2-3세기 경 서적의 유입과 함께 전해졌다 한다. 백제 때에는 일본에 서적을 전달하였

고 고구려 담징이 종이·먹의 제조법을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을 보아 그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르네상스 이후 책의 역사는 751년 당나라에서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로 전해진 제지법은 13세기에 이탈리아를 거쳐 에스파니아까지 도달하였고 1447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판인쇄술과 새로운 종이 제조법의 발달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 책자본의 양산과 보급이 시작되었다.(학원출판공사. 학원대백과사전 11, 1994, 283-285)

2. 名言의 意義

(1) 名言의 意義

명언은 본 연구에서는 격언을 포함한 한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말한 짧은 말을 일컫는다. 격언은 처세상의 가르침과 계율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로서 금언·처세훈·잠언·경구·법언(法諺)이라고도 하며 명현(名賢)과 철인(哲人)들이 개인적이나 개성적으로 말한 것이다. 격언은 인간의 도덕규율, 행동규범을 짧게 표현한 말을 가리키는 프랑스어의 맥심(maxime)에 가까운 말이다.(상계서 2. 150)

(2) 名言의 由來

논어를 보면 격언성법(格言成法)이라 하여 격을 '지당하다'라는 뜻으로 정의하여 격언을 '법칙이 될만한 지언(至言)'이라(학원출판공사. 학원세계대백과사전 1, 1987. 550)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양에서는 격언이란 말이 논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Ⅲ. 冊의 屬性에 관한 名言 調査

조사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국가별로 많은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국

- (1) 책은 그 자체로서 참으로 훌륭하다. 그러나 그것은 열기가 없는 인생의 대응물이다.〈스티븐슨(Stevenson, Robert Louis) 1850-1894, 소설가·시인〉
- (2) 도덕적인 책이라거나 부도덕적인 책이란 없다. 책이란 단지 좋게 잘 썼거나 좋지 못하게 썼거나 할 뿐이다.〈와일드(Wilde, Oscar) 1854-1900, 시인〉
- (3)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이다.
〈워어즈워드(Wordsworth, William) 1770-1850, 시인〉
- (4)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양서라도 해악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밀턴(Milton, John) 1608-1674, 시인〉
- (5) 좋은 책은 영구불멸하다.(상동)
- (6) 책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또 없다.
〈초오서(Chaucer, Geoffrey) 1343-1400, 시인·소설가〉
- (7)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항상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마음은 마음의 양식을 언제나 갈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크래브(Crabbe, George) 1754-1832, 시인〉
- (8) 방구석에서 말 없는 나의 종(책)이 기다린다.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친구들이다.
〈프록터(Procter, Bryan Waller) 1787-1874, 시인〉
- (9) 난로가에서 한 손으로 책을 들고 읽을 수 있는 책이야말로 가장 유용한 책이다.〈존슨(Johnson, Samuel) 1709-1784, 시인〉
- (10) 책은 남달리 키가 큰 사람이요, 다가오는 세대가 듣게끔 소리 높여 외치는 유일한 사람이다.〈브라우닝(Browning, Elizabeth Barret) 1806-1861, 시인〉

- (11) 좋은 책을 처음 접하면 새 친구를 얻는 듯하다. 전에 잘 읽은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난 것 같다.
 <골드스미스(Goldsmith, Oliver) 1730-1774, 시인·수필가·극작가>
- (12) 책은 잘못된 곳이 많아야 비로소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 조금의 모순당착도 없는 책은 권태로서 읽기 어렵다.(상동)
- (13) 책은 무엇인가? 나의 벗,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주막, 나의 유일한 재산 이요, 나의 정원, 나의 유일한 의사요, 유일한 건강이다.
 <르 갈리엔(Le Gallienne, Richard) 1866-1947, 시인·비평가>
- (14)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며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 주는 선물로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
 <애디슨(Addison, Joseph) 1672-1719, 수필가·시인·정치가>
- (15) 나는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 책에서 언제나 가장 큰 이익과 가장 큰 쾌락을 얻었다.<해어(Hare, Augustus William) 1792-1834, 성직자·편집자>
- (16) 언젠고 피로운 환상을 위로하고자 하면 너의 책으로 달려가라. 책은 언제나 함없는 친절로 너를 대한다.
 <풀러(Fuller, Thomas) 1608-1661, 성직자·작가>
- (17) 책은 청년시절에는 길잡이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는 즐거운 오락이 된다.
 <울리아, 1650-1726, 성직자>
- (18) 책은 항상 생활하고 자기의 종자를 인간의 마음속에 심으며 후대의 새로운 시대에 끝없는 행위의 의견을 불러일으킨다.
 <베이컨(Bacon, Francis) 1874-1926, 철학자>
- (19) 책이란 넓고 넓은 시간의 바다를 지나가는 배이다.(상동)
- (20) 신이 인간에게 책이란 구원의 손을 주지 않았더라면 지상의 모든 영광은 땅 각 속에 되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베리(Bury, Richard de) 1287-1345, 성직자(주교)·학자>
- (21) 책, 그대는 성당의 황금 그릇이요, 언젠까지 나 손에 들고 있어야 할 타오르는 등불이다.(상동)
- (22) 그대(책)는 생명의 나무요, 사방으로 뻗은 낙원의 강이다. 그대에 의해 인간의 마음은 자라고, 갈증나는 지성은 물을 얻어 활기를 찾는다. 열매를 맺게 하는 무화과로다.(상동)
- (23) 책은 가끔 문명을 승리로 전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처칠(Churchill, Winston Leonard Spencer) 1849-1895, 정치가>
- (24) 책은 레크리에이션 가운데서도 가장 큰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 책읽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결코 고독한 가운데 권태를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다.<그레이(Grey, Edward) 1862-1933, 정치가>
- (25) 청년을 위해서는 음식이 되고 노인을 위해서는 오락물이 된다. 부유한 사람에 게는 장식물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위안물이 된다. 안으로는 즐거움이 되고 밖으로는 휴대하기에 여행과 시골에서는 좋은 친구가 된다.
<리스킨(Ruskin, John) 1819-1900, 작가·정치가>
- (26) 일시적인 양서와 영구적인 양서가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악서와 영구적인 악서가 있다.(상동)
- (27) 문자의 재능으로서만 저서를 쓸 수는 없다. 한 권의 책의 배후에는 반드시 한 인간이 있다.<스미드 (Smith, Logan Pearsall) 1865-1946, 문학가>
- (28) 베스트 셀러는 평범한 재능인의 금박입힌 무덤이다.(상동)
- (29) 사람의 품격을 그가 읽는 책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그가 교제하는 벗으로 판단되는 것과 같다.<스마일즈(Smiles, Samuel) 1812-1904, 작가>
- (30) 책은 두뇌의 자녀이다.<스위프트 (Swift, Jonathan) 1667-1745, 작가>
- (31) 책은 마음의 신성한 마취제이다.
<체임버즈(Chambers, Robert) 1802-1871, 출판인·편집인>
- (32) 책이 살아 있는 한 과거는 없다.
<리튼 (Lytton, Bulwer) 1803-1873, 소설가·희곡가·정치가>
- (33) 법률은 죽지만, 책은 죽지 않는다.(상동)
- (34) 장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성장한다.
<비렐(Birrell, Augustine), 1850-1933, 수필가·비평가>
- (35) 책에는 모든 과거의 영혼이 가로누워 있다.
<칼라일(Carlyle, Thomas) 1795-1881, 작가·평론가·역사가·사상가>
- (36) 책속에 모든 과거의 마음이 잠잔다.
오늘의 참다운 대학은 책을 모집함에 있다.(상동)
- (37) 고전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느닷없이 도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연 중에 효과를 보게 마련이다.
<베네트(Bennet, Enoch Arnold) 1867-1931, 소설가>
- (38) 어떤 책이 즐겁게 읽히기 위해서는 그 책이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몸(Maugham, William Somerset) 1874-1965, 소설가·극작가>
- (39) 훌륭한 책은 저자의 머리와 심장에서 나왔다. 저자는 책 한 장 한 장에 자신

의 모든 것을 담았다. 각 페이지는 저자와 생명을 같이한 할 뿐아니라 저자의 개성으로 넘쳐 흐른다.

〈허드슨 (Hudson, William Henry) 1841-1922, 소설가·수필가〉

- (40)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도서관을 절반 이상 뒤진다.

〈보즈웰 (Boswell, James) 1740-1795, 전기작가·변호사〉

- (41) 책은 이틀 펴보지 않으면 나무조각이나 같다.〈격언〉

- (42) 열지 않은 책은 종이 문치에 불과하다.〈격언〉

2. 프랑스

- (1) 책을 남용하면 학문이 죽는다.

〈루소 (Rousseau, Jean Jacques) 1712-1778, 철학자〉

- (2) 책도 사람의 경우와 같다. 소수가 큰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패배한다.

〈볼테르(Voltaire) 1694-1778, 시인·역사가·철학자·극작가·비평가〉

- (3) 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세계 전체가 결국은 책으로 지배되어 왔기 때문이다.〈상동〉

- (4) 오늘날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들에서 자양분을 얻고 있다.

〈라 브뤼에르(La Bruyere, Jean de) 1645-1696, 사상가〉

- (5)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책에서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몽테뉴(Montaigne, Michel de) 1533-1592, 철학자〉

- (6) 책은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이 좋은 벗이다.

그러나 언제나 쾌락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독서는 정신을 작용시키기는 하나, 그 동안에 육체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다.〈상동〉

- (7) 낡은 책이 고전이 아니다. 제1판 책이 고전이다.〈상동〉

- (8) 나는 종이물 상대하여 말한다. 내 자아는 내 책의 토대다.〈상동〉

- (9) 책은 그것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독자에게 갖가지의 즐거움을 안겨 준다.

〈몽테스큐(Montesquieu, Charles Louis) 1689-1755, 사상가〉

- (10) 내가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

〈사르트르 (Sartre, Jean-Paul) 1905-1980, 철학자·작가·교육가〉

- (11) 내가 인생을 안 것은 사람과 접촉한 결과는 아니다. 책과 접촉한 결과다.

- 〈프랑스(France, Anatole) 1844-1924, 소설가·비평가〉
- (12) 신간서가 매우 귀찮은 것은 우리들이 오래된 책을 읽을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 문이다.〈쥬베르(Joubert, Bathelley Catherine) 1769-1799, 장군〉
- (13)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생 피에르 (Saint Pierre, Jacpue Henri Bernardin) 1737-1814, 소설가〉
- (14) 책은 꿈꾸는 것을 가르쳐 주는 진짜 선생님이다.
〈바셀라르(bachelard, gaston) 1884-1962, 철학자〉
- (15) 누구에게나 정신에 하나의 기원을 마련해 주는 책이 있다.
〈파브르(Fabre, Jean Henri) 1823-1951, 곤충학자〉
- (16) 책은 풍경화처럼 독자의 생각에 따라 변하는 의식의 상태와 같다.
〈딤네(Dimnet, Ernest) 1866-1954, 작가〉
- (17) 고전적인 작품이란 아마도 소멸되는 적이 없고 해체할 수 없으며 다만 냉각될 수 있는 작품을 말한다.
〈발레리(Valery, Paul) 1871-1945, 시인〉
- (18) 가장 간단한 저작이 항상 가장 우수한 저작이다.
〈라 폰텐(La Fontaine, Jean de) 1621-1695, 시인〉
- (19) 글은 곧 사람이다.〈뷔퐁(Buffon, Georges) 1707-1788, 생물학자〉
- (20) 가장 위대한 책이란 종이 테이프에 적히는 전문처럼 두뇌에 새로운 지식이 박히는 것과 같은 책이 아니고, 생명이 넘치는 충격으로 다른 생을 눈뜨게 하고, 또 다른 생에서 여러 가지 정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롤랑(Rolland, Romain) 1866-1944, 문학가〉

3. 미 국

- (1) 책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교양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더욱이 인생의 신비를 깨 우쳐 주지도 않고, 또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그러한 효능은 치약이나 자 동차에 기대하는 것이 좋다. 단지 어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고 양시키는 것을 뜻하며 그러한 도구로서 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패이더먼(Fadiman, Clifton) 1904-, 비평가·방송극작가〉
- (2) 책은 인생의 험준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남들이 마련해 준 나

침 반이요, 망원경이요, 육분의 이요, 도포이다.

〈베네트(Bennet, Jesse Lee) 1885-1931, 문필가〉

- (3) 어떻게 해서든지 읽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읽는 책은 좋은 벗이 되지 못한다.

〈하우엘즈(Howells, William Dean) 1837-1920, 소설가·시인·비평가〉

- (4) 책은 아마도 피어난 꽃송이, 먼 마을로 가는 지팡이요, 우물이요, 탑이다. 책은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로다.

〈리즈(Reese, Lizette Woodworth) 1856-1935, 시인〉

- (5)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책이 있다. 어떤 책이든지 읽는 이에게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신의 불꽃이 불붙기까지는 그 책은 사물(死物)에 불과하다.

〈밀러(Miller, Henry) 1891-1980, 소설가〉

- (6) 음악과 책은 모두가 이 세상을 철학으로 장식한다.

〈에머슨(Emerson) 1803-1882, 철학자·시인〉

- (7) 책이란 잘 이용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악용하면 나쁜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상동)

- (8) 기대하고 펼쳐서 이익을 얻고 덮는 책이 양서이다.

〈올컷트(Alcott, Amos Bronson) 1799-1888, 교육자·철학자〉

- (9) 고전이란 저자와 독자와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파킨슨(Parkinson, C. Northcote) 1909-, 작가·역사가〉

- (10) 양서는 친구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요, 현재도 그리고 영구히 변하지 않는 친구다.〈더버(Thurber, James) 1894-1961, 수필가·단편작가〉

- (11) 명저들은 오늘날의 세계를 문명화 시키는 가장 유력한 힘이다.

〈애들러(Adler, Mortimer J.) 1902-, 철학자·저술가〉

- (12)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데오도르 파카(Packer, Theodore) 1810-1860, 성직자〉

- (13) 책은 비장된 세상의 재산이요, 세대와 알맞는 민족의 상속재산이다.

〈도로우(Thoreau, Henry David) 1700-1748, 시인·수필가〉

- (14) 베스트 셀러 주의는 책 세계의 흥행술이다.

〈버스틴(Boorstin, Daniel J.) 1914-, 작가·교육자〉

- (15) 책의 세계는 인간의 가장 광복할만한 창조다. 인간이 만든 유일하게 영구적인 물건은 책이다.〈데이(Day, Clarence Shepard) 1874-1935, 작가〉

- (16)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트웨인(Twain, Mark) 1835-1910, 소설가〉

4. 독 일

- (1) 악서는 아무리 적게 읽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적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양서는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악서는 정신에 독이 되고 머리를 둔하게 한다.

〈쇼펜하우어(Schopenhauer, Arthur) 1788-1860, 철학자〉

- (2) 악서는 읽지 않으려고 해도 자주 접촉하게 되지만, 양서는 꼭 읽으려 해도 뒤로 밀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독자들의 현실이다.(상동)

- (3) 도서는 자기의 머리로써가 아닌 타인의 머리로써 사색하는 일이다.(상동)

- (4) 책은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요 가장 용감한 남자이다. 책은 어머니 같은 여자요 가장 사랑스럽고 어여쁜 처녀이다. 일곱 권의 좋은 책만 가질 수 있다면 사람이 필요없다.

〈뮌히하우젠(Munchhausen, Borries von) 1874-1945, 시인〉

- (5) 서가는 곧 인간이다. 나에게 너의 책을 보여 달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말해 주리라.

〈마네스(Manes, Alfred) 1877-1963, 경제학자〉

- (6) 책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무형의 것, 정신을 담기 위한 실질적인 그릇이다. 책은 인간과 같은 것이다.

〈하우프트만(Hauptmann, Gerhart) 1862-1946, 극작가〉

- (7) 지혜의 샘이 서적 사이로 흐른다.<격언〉

5. 로 마

- (1) 책은 이종의 혜택이다. 웃음을 자아내 주고 충로서 현명한 자에게는 사느 방법을 가르쳐 준다.<파에드루스(Phaedrus) 1세기경, 우화작가〉

- (2) 책은 청년에게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자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면 위안이 된다.

〈키케로(Cicero) BC106-43, 웅변가·정치가·철학자〉

- (3) 책은 스스로의 생명이 있다.<마우루스(Maurus, Terentinus) 2세기, 시인>
- (4) 책의 운명은 독자를 어느 만큼 갖느냐 하는 수용력에 달려 있다.(상동)
- (5) 책치고 거기서 약간의 이익을 얻지 못할 만큼 나쁜 것은 없다.
<플리니우스(Plinius, Gaius) 23-79, 작가>

6. 스페인

- (1) 좋은 내용이 많이 쓰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양서라고 할 수는 없다.
<세르반테스(Cervantes Saavedra, Miguel de) 1547-1616, 극작가·소설가>
- (2)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아야 한다.<격언>

7. 그리스

- (1) 책은 정신의 음식이다.<소크라테스(Sokrates) BC 470-399, 철학자>

8. 이탈리아

- (1) 좋아하는 책은 독서로 위락과 용기를 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통해서 지혜와 사 고력을 길러준다.
<고리아(Gorrio, Tobia) 1842-1918, 시인>

9. 네델란드

- (1) 그대는 책에 베푸는 것이 없다. 그러나 미래에는 책이 그대에게 한 없는 영광을 주리라.<에라스무스(Erasmus, Desiderrius) 1466-1536, 철학자>

10. 노르웨이

- (1) 인생은 한편의 책과 흡사하다.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훌쩍 훌쩍 읽어 버리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정성드려 읽는다.
〈보예르(Bojer, Johan) 1872-1959, 작가〉

11. 스코틀랜드

- (1) 책은 세상 안에서의 보다 훌륭한 세상이다. 긴 잠에 들 때 나는 책을 베게 삼아 누울 것이다.〈스미드(Smith, Alexander) 1830-1867, 시인·수필가〉

IV. 冊의 屬性에 관한 名言 分析

조사된 명언을 국적에 따라 나누면 영국 명언 42개, 프랑스 명언 21개, 미국 명언 16개, 독일 명언 7개, 로마 명언 5개, 스페인 명언 2개, 노르웨이 명언 1개, 스코틀랜드 명언 1개, 그리스 명언 1개, 이탈리아 명언 1개, 네델란드 명언 1개로 모두 98개이다. 국가별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 내용, 말한 사람의 국적과 직종, 말한 사람의 업적 및 활동, 말한 사람의 활동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名言 內容

(1) 영 국

스티븐슨은 책을 인생의 대용물로 보았고, 워어즈워드는 책을 하나의 세계, 프록터는 변함없는 친구, 골드스미스는 책을 접하는 것을 새 친구와 옛

친구의 만남으로, 르 갈리엠클은 본인의 벗·사랑·교회, 주막·재산·정원·의사·건강이라고 생각하였다. 에디슨은 책을 인류의 유산과 자손에게 주는 선물로 보았고, 성직자 울리아는 책을 청년시절에는 길잡이와 어른에게는 오락이 된다고 하였다. 베이컨은 책은 인간의 마음에 자기의 존재를 심으며 시간의 바다를 지나가는 배라고 보았고, 베리는 황금그릇·등불·생명의 나무·낙원의 강·그레이는 레크리에이션, 러스킨은 청년에게는 음식, 노인에게는 오락물, 부자에게는 장식물, 빈자에게는 위안물이 된다고 하였다. 스미드는 베스트 셀러를 금박입힌 무덤, 스위트프트는 두뇌의 자녀, 체임버즈는 마음의 마취제라고 하였다. 보지 않는 책은 나무조각, 열지 않는 책은 종이 몽치라고 한 영국 격언이 있다. 오스카 와일드는 책에는 도덕적인 책이나 부도덕적인 책이 없다고 하였고, 러스킨은 일시적인 양서와 영구적인 양서, 일시적인 악서와 영구적인 악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밀턴은 좋은 책은 영구불멸하다고 보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책이라도 해악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초오서는 책만큼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고 보았지만, 크래브는 좋은 책이라도 항상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존슨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유용한 책, 브라우닝은 책을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골드스미스는 완벽한 책은 권태로서 읽기 어렵다고 하였고, 해어는 좋다고 생각한 책에서 이익과 쾌락을 얻었다고 했으며, 풀러는 괴로운 환상을 위로하고자 할 때에는 책으로 달려가라고 충고해 주었다. 베리는 신이 책을 주지 않았다면 지상의 모든 영광이 망각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처칠은 책을 문명 승리의 수단으로 보았고, 스마일즈는 사람의 품격을 읽는 책으로 판단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미드는 한 권의 책 배후에는 반드시 한 인간이 있음을 간파하였고, 리튼은 책이 살아 있는 한 과거는 없고 책은 죽지 않으며 비럴은 장서의 성장과 칼라일은 책속에 과거의 마음과 영혼이 잠잔다고 하였다. 베네트는 고전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은연중 효과를 본다고 하였고, 몸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이 읽히게 된다고 보았고, 허드슨은 책이 저자의 머리와 심장에서 나왔다고 하였고, 보즈웰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절반 이상 뒤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2) 프랑스

루소는 책의 남용은 학문의 죽음을 초래한다고 하였고, 볼테르는 소수의 책이 큰 역할을 하고 세계가 책으로 지배된다 주장하였다. 라 브뤼에르는 책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들의 자양분을 얻는다고 보았으며, 몽테뉴는 책은 좋은 벗이며 복잡한 생각은 책의 도움으로 벗어 날 수 있고, 고전을 제1판으로 보고, 자아가 책의 토대라고 하였다. 발레리는 고전 작품은 소멸되지 않고 우수한 저작은 간단한 저작이라고 하였다. 몽테스큐는 책에서 즐거움을 얻고, 사르트르는 책에 의해서 세계를 알았으며, 프랑스는 인생을 알게 된 것을 책과 접촉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쥘베르 장군은 신간서가 오래된 책을 읽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였고, 생 피에르는 좋은 책이 좋은 친구, 바셀라르는 책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였다. 파브르는 정신에 기원을 마련해 주는 책이 있음과 덤네는 독자의 생각에 따라 책이 변함을 풍경화에 비유하여 설명하였고, 뷔퐁은 글을 사람에 비유하고, 롤랑은 위대한 책은 다른 생을 눈뜨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3) 미 국

페이디먼은 책은 자신을 발견하고 고양시키는 도구로 보았고, 제시 리 베네트는 책을 인생의 바다 항해에 도움을 주는 나침반·망원경·육분의·도표라고 생각하였다. 하우스엘즈에 의하면 타외에 의하여 읽는 책은 좋은 벗이 못되며, 리즈는 책을 꽃송이·지붕·우물·담·지팡이에 비유하여 말하였다. 밀러는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책이 있음을 말하고, 에머슨은 책은 이 세상을 철학으로 장식하고 잘 이용하는 좋은 것이고 악용하면 나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울커트는 이익을 얻는 책을 양서라고 하고, 파킨슨은 고전을 저자와 독자와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더버는 양서를 친구 중의

좋은 친구요 변치 않은 친구라고 하고, 애들러는 명저에는 세계를 문명화 시키는 유력한 힘이 있으며, 마크 트웨인은 가장 필요한 책이 가장 많이 생각하게 책, 파카는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하였다. 도로는 책을 재산, 민족의 상속 재산이라고 하고, 데이는 인간이 만든 영구적인 물건이 책이라고 주장 하였다. 버스틴은 베스트 셀러주의는 책 세계의 흥행술이라고 간파하였다.

(4) 독 일

쇼펜하우어는 악서는 정신에 독이 되고 머리를 둔하게 하며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접촉하게 되지만 양서는 읽으려고 하여도 뒤로 밀린다고 하였고 또한 독서는 타인의 머리로서 사색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뉘히하우젠은 책을 지혜로운 노인·용감한 남자·어머니 같은 여자·어여쁜 처녀에 비유하였고, 마네스는 서가를 인간에, 하우프트만은 책을 인간에 비유하였다. 지혜의 샘이 서적 사이로 흐른다는 격언이 있다.

(4) 로 마

파에드루스는 책은 웃음을 주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고, 키케로는 책이 청년에게는 음식, 노인에게는 오락, 부자일 대는 자식, 고통스로운 때는 위안이 된다고 하였다. 마우루스는 책에는 스스로 생명이 있으며 책의 운명은 독자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폴리니우스는 이익을 얻지 못할 만큼 나쁜 책은 책을 없다고 하였다.

(6) 스페인 외 각국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는 좋은 내용이 많다고 양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책은 친구처럼 수가 적고 좋아야 한다는 스페인 격언이 있다. 그리이스

의 소크라테스는 책을 정신의 음식이라고 하였고, 이탈리아의 고리아는 좋아하는 책은 위락과 용기를 준다고 하였다. 네델란드의 에라스무스는 책이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을 준다고 하였고, 노르웨이의 보에르는 인생을 한 권의 책에 비유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스미드는 책은 세상 안에서의 훌륭한 세상이라 하였다.

2. 名言을 말한 사람의 國籍 및 職種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의 국적을 조사해 보면 총 76명 중에서 영국인 31명, 프랑스인 16명, 미국인 15명, 독일인 4명, 로마인 4명, 스페인인 1명, 그리스인 1명, 이탈리아인 1명, 네델란드인이 1명, 노르웨이인 1명, 스코틀랜드인 1명이다. 영국인 31명을 주요 직종 분야별로 분류하면 총 52분야 중에 문학분야 35명(시인 12, 소설가 6, 작가 5, 수필가 4, 비평가 2, 극작가 2, 전기작가 1, 평론가 1, 문학가 1, 희극가 1명), 정치가 5명, 성직자 4명, 출판 및 편집 분야 3명(출판인 1, 편집인 2), 철학분야 2명(철학자 1, 사상가 1), 학자 1, 역사가 1, 변호사 1명이다. 영국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책과 관련이 가장 많은 문학분야 사람들이 67%로 가장 많으며 정치가 10%, 성직자 8%, 출판 및 편집분야가 6%, 철학분야가 4%, 그외인 학자·역사가·변호사가 각각 2%이다. 영국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문학분야 사람 중에는 시인이 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소설가 17%, 작가 14%, 수필가 11%, 비평가와 극작가가 각각 6%, 그 외인 전기작가·평론가·문학가·희극가가 각각 3%이다. 프랑스인 16명을 주요 직종 분야별로 분류하면 총 23분야 중에는 문학분야 11명(시인 3명, 작가 2명, 소설가 2명, 비평가 2명, 극작가 1명, 문학가 1명), 철학분야 7명(철학자 5명, 사상가 2명), 생물학분야 2명(곤충학자 1명, 생물학자 1명), 교육가 1명, 역사가 1명, 장군 1명이다. 프랑스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책과 관련이 많은 사람인 문학분야 사람들로 48%, 철학분야 30%, 생물

학분야 9%, 교육가와 역사가, 장군이 각각 4%이다. 프랑스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문학분야 사람 중에는 시인이 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작가와 소설가, 비평가가 각각 18%, 극작가와 문학가가 각각 9%이다. 미국인 15명을 주요 직종 분야별로 분류하면 총 23분야 중에는 문학분야 16명(시인 4명, 작가 4명, 소설가 3명, 비평가 2명, 방송극작가 1명, 수필가 1명, 문필가 1명), 철학자 2명, 교육자 2명, 역사가 1명, 저술가 1명, 성직자 1명이다. 미국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책과 관련이 많은 문학분야 사람들이 70%로 가장 많으며 철학자와 교육자가 각각 9%, 역사가·저술가·성직자가 각각 4%이다. 독일인 4명을 주요 직종별로 분류하면 문학분야 2명(시인 1명, 극작가 1명), 철학자 1명, 경제학자 1명이다. 독일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문학분야 사람들이 50%로 가장 많고 철학자와 경제학자가 각각 25%이다. 로마인 4명을 주요 직종 별로 분류하면 문학분야 3명(시인 1명, 작가 1명, 우화작가 1명), 웅변가 1명, 정치가 1명, 철학자 1명, 이다. 로마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문학분야 사람들이 50%로 가장 많고 웅변가와 정치가 그리고 철학자가 각각 17%이다. 스페인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소설가 및 극작가 1명으로 문학분야 사람이다. 그리이스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철학자 1명으로 철학분야 사람이다. 이탈리아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시인 1명으로 문학분야 사람이다. 네델란드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철학자 1명으로 철학분야 사람이다. 노르웨이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작가로 문학분야 사람이다. 스코틀랜드에서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은 시인·수필가 1명으로 문학분야 사람이다.

3. 名言을 말한 사람의 業績 및 活動

명언을 말한 영국인을 업적 및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면 영문학에 있어

서 최대 걸작이며 구약성서의 낙원을 잃은 이야기에서 기초한 실낙원(失樂園)의 저자 존 밀턴, 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했으며 『보물섬』, 『지킬박사와 하이드』 등 유명한 작품을 남겼고 변호사이기도 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시인이며 소설가·극작가·비평가로 1888년에는 동화집 『행복한 왕자』, 『석류의 집』 소설, 예술이론집인 『의도』 등을 편찬한 오스카 와일드, 계관시인이며 자연에의 미적 관심이 많은 윌리엄 워어즈워즈, 캔터베리(Canterbury) 이야기를 쓰고 국회의원 및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영국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초오서, 시인으로서 『도서관』, 『시로 쓴 이야기』, 『지주 저택의 이야기』, 『자치구』, 『신문』 등의 작품을 남긴 크래브, 런던에서 변호사를 역임하고 시와 극을 발표하였고 시집 『영국의 노래』를 쓴 프록터, 풍자시로 인정을 받았고 1755년에는 영어사전을 완성시켰으며 『영국 시인전』을 쓴 사무엘 존슨, 로버트 부라우닝의 부인이며 12세부터 서사시를 쓴 수재로서 여류시인인 부라우닝, 시인이며 수필가·극작가이기도 한 올리버 골드스미스, 시인이며 비평가로서 『나의 책』, 『날아 가는 세월』, 『여혼의 데카당』, 『약소민족의 외침』 등의 작품을 남긴 르 켈리언, 국무대신을 지낸 정치가이며 산문 발달에 공이 큰 조셉 애디슨, 성직자·편집자로서 『진리의 추론』, 『광상곡』 등의 작품을 남긴 해어, 성직자로서 『금언집』, 『잠언집』, 『신성이교도국』, 『교회사』 등의 저서를 남긴 풀러, 성직자 올리아, 더럼 주교라고 하는 성직자·학자로서 『서적광』 등의 작품 쓴 베리, 고전경험론의 창시자로 학문의 『권위와 진보』를 저술한 베이컨, 정치가·문필사·옹변가이며 수상을 지내고 그림으로도 유명하고 『세계 제2차대전 회고록』으로 노오벨 문학상을 수상한 처어칠, 정치가·외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외교무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외교연설집』을 펴낸 에드워드 그레이, 미술평론가·수필가이며 성 조오지조합을 조직하고 사회개발사업을 하기도 한 러스킨, 미국 태생의 영국 문학가로 『추상』, 『세익스피어를 읽으면서』 등의 작품을 남긴 스미드, 작가·사회개혁가로 『자조론』, 『검약』 등의 작품을 쓴 스마일즈, 에이레 출생으로 성직에 올라 고향 더블린의 성 패트릭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걸리버 여행기』, 『나무통 이

야기』, 『스텔라에게 보낸 편지』 등의 저작을 남긴 스위프트, 출판 편집자로서 『영국 문학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글을 남긴 체임버즈, 국회의원을 지낸 후에 대학총장을 역임하였고 남작을 받았으며 소설 『폼페이 최후의 날』, 『리엔지』, 희곡 『금』 등의 작품을 남긴 벌러 리튼, 『부수적 의견』 등의 평론 및 많은 수필을 남긴 비럴, 사상가·역사가로 교수가 되었고 독일 문학을 연구하여 『실러의 생애』, 역사가로서 『프랑스 혁명가』에 의하여 명성을 얻었고 후에 예든버러 대학의 명예총장이 된 카알라일, 1차대전 전후의 대표적 소설가로 프랑스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 많으며 『노부 이야기』, 『명물 사나이』, 『명예』 등의 작품을 남긴 베네트, 의학을 공부하다가 문학으로 전향하여 일류작가가 되었고 195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소설 『람베드의 라이자』, 『인간의 굴레』, 『달과 6펜스』, 『과자와 맥주』, 『먼도날』, 희곡으로 『훌륭한 사람들』, 『순환』 등의 작품을 남긴 뎀, 양친은 미국인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하였으나 1900년에 영국에 귀화하였고 대지와 동식물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라 플라타의 박물학자』, 『녹색의 장원』, 『먼나라, 먼 옛날』 등의 작품을 남긴 허드슨, 충실하고 숭배할 만한 전기작가로 변호사를 역임하였고 전기문학의 걸작인 『사무엘 존슨 전』, 방대한 『사기』, 『일기』 등을 쓴 보즈웰이 있다. 명언을 말한 프랑스인을 업적 및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면 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하고 1750년과 1751년에는 아카데미 현상논문에 당선하여 문명을 떨치었고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자유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 일관된 사상이며 18-19세기 초에 각 방면에 큰 영향을 주어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고 『인간불평등 기원론』, 『민약론』, 『에밀』, 『참회론』 등의 명저를 남긴 잔자크 루소, 루이 14세 말기의 특이한 모럴리스트로 변호사였으며 『각종의 사람들』, 『정속주의에 관한 대화』를 저술한 라 브리에르, 문예의 모든 분야에 만능적 재능이 있어 선구적인 계몽운동에 일신을 바치고 루소와 더불어 프랑스 혁명을 사상적으로 준비한 사람이며 당시의 종교와 정치를 비판하였고 장편 시인 『앙리아드』, 역사서인 『샤를르 12세사』, 『풍습론』, 철학서에 『철학적 서한』, 『관용론』, 『철학적 사전』

동 90여편의 저작을 남긴 볼테르, 법률학을 공부하고 고등법원에서 근무하였고 후에 출생지의 시장을 역임하고 『자연신학』을 번역하여 독서와 집필 생활을 하였으며 수상록을 써 유럽의 철학과 문학에 영향을 끼친 몽테뉴, 판사·법원장을 역임하고 유럽정세를 풍자한 서한 형식의 글인 『페르시아인의 편지』로 유명해졌으며 연구와 집필에 전념하여 『로마 성쇠의 원인에 관한 고찰』,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큐, 철학을 공부하여 고등학교에서 철학교사로 근무하였고 베를린에 유학하여 철학을 연구하였으며 현상학이 낳은 철학 논문 『자아의 초극』, 『상상력』, 소설 『구토』, 장편소설 『자유에의 길』, 논문 『존재와 무』, 극작으로 『파리』, 『모지없는 사자』, 『때 묻은 손』, 『악마와 신』 등이 있고 1964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절하기도 한 사르트르, 아카데미 문학상을 수상하고 5년 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시평을 썼고 1896년에는 아카데미 프랑세이즈 회원이 되었으며 1921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붉은 백합』, 『천사의 반역』, 『신들은 목마르다』등을 저술한 프랑스, 루소의 제자로 신의 섭리에 의한 자연 선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저술한 『자연연구』 3권과 소설 『폴과 비르지니』를 쓴 생 피에르, 이학·문학박사로 디종대학교 소르본느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후에 과학기술사 연구 소장이 되었고 『새로운 과학적 정신』, 『현대물리학에 있어서의 경험』, 『무의 철학』, 『휴과 휴식의 몽상』, 『불의 정신 분석』, 『공간의 시학』, 『몽상의 시학』 등의 저서를 남긴 바셀라르, 독학하여 초·중등 교원이 되었으며 박물학에 흥미를 갖고 곤충의 생태를 연구하여 『자연과학의 역사』를 최초로 발표하였고 유명한 『곤충기』 10권을 남긴 파브르, 작가로서 『사고의 기술』등의 작품을 남긴 뫼비, 창작의 방법론을 저술한 평론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방법 서설』, 소설 『테스트씨의 하루 밤』, 장시인 『젊은 파르크』와 『매혹』을 쓴 시인·사상가·평론가로 알려진 발레리, 아버지가 산림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자연과 친할 기회가 많아 자연시인이 되었고 1684년에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으며 예술의 특징은 자연·소박·순정적인 정신과 고어가 약동하며 시형이 음악적이고 회화적인 작품인 『우화시』, 『펠레몽과 보시스』, 『미네의 딸들』을 남긴 라 봉뎀, 자연적 기

계관을 신봉하고 진화론의 선구자이며 44권으로 된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박물지』의 저자인 뷔퐁, 로마에서 음악사를 연구하고 소르본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휴머니즘 입장에서 글을 썼으며 극작집인 『혁명극』, 『신앙의 비극』과 평론인 『민중극장론』 3부작으로 된 전기인 『베에토베엔 생애』, 『톨스토이의 생애』, 『미켈란젤로의 생애』, 대작인 『장 크리스토프』를 저술한 몰랑, 모더니스트이며 문학가로 『명상록』을 쓴 쥘 베르, 명언을 말한 미국인을 업적 및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면 방송극과 『몇 명이든 놀수 있다』 등의 비평을 남긴 패이더먼, 문필가로서 『안내자로서의 책』, 『교양과 일반교육』, 『교양에 관하여』 등 많은 글을 쓴 베네트, 독학으로 영문학을 연구하였고 미국 리얼리즘 문학의 성장에 이론과 실작의 주춧돌을 놓았고 소설 『신혼여행』, 『인도의 여름』, 『아루스투크호의 귀부인』, 평론으로 『비평과 허구』 등을 쓴 하우엘즈, 시인으로 『책』, 『진리』 등의 글을 쓴 리즈,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다가 파리에서 빈궁하게 생활하면서 대담한 성묘사로 주목을 받은 『북회귀선』을 썼고 필생의 대작인 『장미빛의 십자가』를 집필한 밀러, 7대에 걸친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초절주의의 대표자로 『일기』, 『수필집』, 『자연론』, 『아메리카 학도』 등의 저서를 남긴 에머슨, 『콩코드 시절』, 『다화(table talk : sleep)』 등의 작품을 남기고 교육자인 울컷, 역사가이며 『파킨슨의 법칙』 등을 쓴 파킨슨, 유머러스 한 작품이 많으며 『성은 필요 한가?』, 『침실의 물개』, 『그네에 탄 중년 남자』 등의 단편을 남긴 더버, 칼럼비아와 시카고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서구 명저전집 (전54권) 편집에 참가하였고 1952년에 미국철학협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독서법』, 『변증법』, 『철학의 조건』, 『우리들의 시대』 등의 저서가 있는 애들러, 성직자이며 반노예 운동의 지도자로 『데오도 파커 전집』, 『미국의 이상』 등의 저서가 있는 파커, 시인·수필가이며 자연주의자로 호수가에 오두막을 짓고 자급자족 생활을 하였으며 『일기』, 『월든 숲속의 생활』, 『존 브라운 대위의 변호』 등의 작품을 남긴 도로우, 교육자이며 시인으로서 『이미지』 등의 작품을 남긴 버스틴, 자서전적인 글인

『아버지와의 생활』, 『어머니와의 생활』이 극화되어 8년간이나 상연되었고 『말없는 사색』, 『접장이의 등우리』, 『유인원의 세계』, 『푸른 산촌』 등의 주옥 같은 글을 쓴 데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인쇄공·신문기자·편집원 등으로 전전하다가 생활의 체험을 소재로한 작품을 남긴 작가가 되었으며 『툼소어의 모험』, 『학클베리 편』, 『미시시피강의 생활』 등을 쓴 마이크 트웨인, 명언을 말한 독일인을 업적 및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면 은행가의 아버지와 작가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으며 연세주의 경향은 니체에게 영향을 주었고 『시각과 색체에 대하여』,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등의 저서를 남긴 쇼펜하우어, 서정시를 많이 쓴 뢰히하우젠, 독일 출신으로 독일 보험학회를 설립하였고 후에 미국에 망명하여 미국 경제학자가 되었으며 『보험론』, 『보험학사전』을 집필한 마네스, 베를린에서 자유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사회극을 발표하였고 『동트기 전』, 『외로운 사람들』, 『직공』, 『비이버 모피』, 『침종』 등의 저술 활동을 하였으며 1985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하우스프트만이 있다. 명언을 말한 로마인을 업적 및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면 로마의 우화작가로 『우화집』을 남긴 파에드루스, 도덕 철학적 수필가로 변호사를 역임하였고 로마 제1의 웅변가로 연설집을 남겼으며 중세철학의 선생님이로 불리는 키케로, 카르타고 태생의 로마 시인으로 『문학론』 등의 작품과 많은 시를 남긴 마우루스, 로마의 작가·과학자로 『자연의 역사』, 『서간집』 등의 작품을 남긴 플리니우스, 명언을 말한 기타 각국인을 업적 및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하면 스페인인 세르반테스는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숙에 들어가 로페스 데오도스로 교사로 부터 지도를 받았고 불후의 명작 『동키호테』를 남겼다. 그리이스인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석공 아들로 태어나 교육자로 자각하여 청년들을 교화시키기로 결심하고 정의·절제·용기·경건 등을 감화시켰으나 청년을 부패시켰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으며 그의 저서로 남겨진 것은 없으나 제자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 등에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이탈리아인인 고리아는 많은 시를 남겼고, 네델란드인인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 사상가로 옥스퍼드대학에서 그리

이스어를 가르쳤으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유명한 『우신예찬』을 써 학식을 자랑하고 비상한 반응을 얻었다. 노르웨이인인 보예르는 고아로 자란 현대 작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작가 생활을 하였으며 작품으로 『해변의 사람들』, 『최후의 바이킹』이 있다. 스코틀랜드인인 스미드는 시인·수필가로 작품으로는 수필 『꿈꾸는 마을』, 『호르튼』이 있다.

4. 名言을 말한 사람의 活動 時期

명언을 말한 영국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13-14세기 1명, 14-15세기 1명, 17세기 2명, 17-18세기 3명, 18세기 3명, 18-19세기 5명, 19세기 5명, 19-20세기 11명이다. 명언을 말한 프랑스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16세기 1명, 17세기 2명, 18세기 3명, 18-19세기 1명, 19-20세기 6명, 20세기 1명이다. 명언을 말한 미국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18세기 1명, 18-19세기 1명, 19세기 2명, 19-20세기 20세기 4명이다.

명언을 말한 독일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18-19세기 1명, 19-20세기 3명이다. 명언을 말한 로마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기원전 1명, 1세기경 2명, 2세기 1명이다. 명언을 말한 기타 각국인의 활동 시기별로는 스페인인 16-17세기 1명, 그리스인 기원전 1명, 이탈리아인 19-20세기 1명, 네델란드인 15-16세기 1명, 노르웨이인 19-20세기 1명, 스코틀랜드인 19세기 1명이다.

V. 結 論

책의 속성에 대한 명언을 국가별로 나누어 내용을 분석하고 말한 사람의 국적 및 직종·업적 및 활동·활동시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책은 인생의 길잡이·세계·세상·사람·인생·노인·남자·여자·치녀·

친구·벗·선생님·의사·자식·오락(레크리에이션)·장식물·위안물·나침반·배·망원경·육분의·도표·교회·주막·그릇·음식·등불·정원·나무·강·꽃송이·지붕·우물·탑·지팡이·재산·유산·사랑·건강·생명·마취제·두뇌의 자녀이며 교양의 도구요 문명 승리의 수단이다. 책은 영광·기쁨·쾌락·즐거움·위로·웃음을 주고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사는 방법과 용기·지혜·이익·자양분을 주고 사고력을 길러 준다. 고전은 제1판이며 매력과 미는 은연 중에 나타난다. 고전은 소멸과 해체되지 않으며 저자와 독자의 협력으로 생성된다. 책은 인생을 알게 하고 도움을 주는 책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며 위대한 책은 생을 눈 뜨게 하는 책이다. 훌륭한 책은 저자의 머리와 심장에서 나오고 명저는 세계를 알게하고 지배하며 문명화 시키고 배후에는 한 인간이 있다. 읽는 책에 따라 사람의 품격을 판단할 수 있고 책은 안보면 종이 뭉치요, 나무 조각이다. 양서는 접촉하기 어렵고 좋은 친구요 변치 않는 친구이며 영구불멸하다. 악서는 접촉이 쉽고 독이 있으며 머리를 둔하게 한다. 책은 생명이 있어 성장하나 죽지는 않고 운명은 독자의 수와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이익을 못주는 책은 없으며 선용하면 좋고 악용하면 나쁘다. 베스터 셸러는 흥행술이요 급박 입힌 무덤이다.

책의 속성에 관한 명언을 말한 사람의 국적을 조사해 보면 총 76명 중에서 영국인 31명, 프랑스인 16명, 미국인 15명, 독일인 4명, 로마인 4명, 스페인인 1명, 그리스인 1명, 이탈리아인 1명, 네델란드인이 1명, 노르웨이인 1명, 스코틀랜드인 1명으로 국력이 강하고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이 많으며 영국 41%, 프랑스 21%, 미국이 19%, 독일과 로마 각각 5%이며 그외 국가는 각각 1% 정도이다.

말한 사람의 직종의 분야가 총 117개 분야인데 그 중에 문학분야 73, 철학분야 15, 정치가 6, 성직자 5, 교육자 3, 역사가 3, 출판 및 편집 3, 생물학분야 2, 학자 2, 저술가 1, 장군 1, 웅변가 1, 경제학자 1, 변호사 1이다. 문학분야가 전체의 62%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문학분야 중에는 시인이 23명인 32%, 소설가 12명인 16%로 시인과 소설가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철학분야가 13%이며 정치가 5%, 성직자 4%, 그외가 16%이다.

명언을 말한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별로는 총 76명 중에서 BC 2명, 1세기 2명, 2세기 1명, 13-14세기 1명, 14-15세기 1명, 15-16세기 1명, 16세기 1명, 16-17세기 1명, 17세기 4명, 17-18세기 5명, 18세기 7명, 18-19세기 8명, 19세기 8명, 19-20세기 29명, 20세기 5명, 미상(격언) 4명으로 19-20세기 29으로 38%를 차지하고 18-19세기와 19세기가 각각 8명으로 11%, 18세기 7명으로 9%, 17-18세기와 20세기는 각각 5명으로 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원전 부터 2세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5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 옛날부터 책을 중요시 했음을 알 수 있다.

책은 사회를 변화·발전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인생의 길잡이요 선생님이며 좋은 친구이다. 또한 책은 인류가 만들어 남기는 위대한 유산이며 재산이다. 책은 학술활동의 바탕일 뿐만아니라 문화창조와 인재양성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참 고 문 헌〉

- 고려출판사편. 『세계명저대사전』, 대구 : 고려출판사, 1992.
 고려출판사편. 『세계인명대사전』, 대구 : 고려출판사, 1992.
 국문학대사전 편찬위원회편. 『국어국문학대사전』, 서울 : 대제 각, 1984.
 김영진. 『책한테 길을 물어』, 서울 : 현대문학사, 1986.
 세계일보. 1997년 4월 25일자 18면.
 안도섭. 『책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 서울 : 소나무, 1994.
 안춘근. 『독서의 지식』, 서울 : 범우사, 1993.
 양주동편. 『세계명언대사전』, 서울 : 교육서관, 1992.
 이두영. “책의 해”에 해야 할 근본 과제, 『도서관문화』 34권 1호(통권 278호),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3, 1·2.
 장옥순·정석희 엮음. 『책은 읽히고 싶다』, 서울 : (사) 국민독서문화진흥회, 1995.
 정필모. 『문헌정보학원론』, 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1996.
 천혜봉. 『한국서지학』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58, 서울 : 민음사, 1993.

한국출판학회편. 『출판업무편람』, 서울 : 경인문화사, 1994.

학원출판공사편. 『학원대백과사전』, 서울 : 학원출판공사, 1994.

학원출판공사편. 『학원세계대백과사전』, 서울 : 학원출판공사, 1987.

Mortimer J. Adler and Charles Van Doren. 민병덕 역. 『How to Read a Book(독서의 기술)』, 서울 : 범우사, 1995.

A Study on Wise Sayings on the Nature of Book

Lee, Man-Soo*

〈Abstract〉

98 wise sayings on the nature of book are collected from various books and analyzed in their meaning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m are as follows :

A book is a good friend, teacher, doctor, and guide of life.

A book is an implement of enhancing man's culture and a vehicle of civilization.

A book makes man find his own self and shows his way of life.

A book has its own life, develops it, and doesn't lose its life, but its destination depends on its reader.

Great books make man know, dominate, civilize the world.

Good books are not easy to come in contact with, but immortal and life-long as a good friend.

Bad books are not difficult to come in contact with, but poisonous and dull.

You can judge a man by the book he reads.

A book to be of help is to make man think.

* Full time instruct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aejin University.

Great books make man begin his new life.

Nationalities occupations, and periods of activity of the authors who said wise saying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irst, the nationalities of the authors are such advanced countries with high culture as England(41%), France(21%), America(19%), Germany(5%) and Rome(5%).

Secondary, their occupations are as follows : a man of letters(62%), philosopher(13%), politician(5%), and churchman (4%), And especially poet forms 32 percent of men of letters.

Thirdly, their activity periods are mainly 19C~20C and the period forms 38 percent of the whole.